

# “선한 영향력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남고파” 재난 속 쏟아지는 ‘생존 예능’

‘바닷길 선발대’ 등 여행 접목 콘셉트 눈길

### ‘운동풍’으로 전성기 맞은 코미디언 김민경 목욕하러 자리 지키며 대중들에게 눈도장 찍어

“물론 똥똥하다고 놀림당하면 싫죠. 하지만 그 살 덕분에 ‘개그콘서트’ 무대에도 서고, ‘맛있는 녀석들’도 할 수 있었기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하기도 하죠.”

최근 강남구 신사동의 한 카페에서 코미디언 김민경(39)을 만났다. 유튜브 ‘오늘부터 운동풍’ (이하 ‘운동풍’)으로 활약하고 있는 그는 시청자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운동을 하고 있지만, 살을 빼고 싶은 생각은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운동풍’은 대한민국 대표 먹방 예능 ‘맛있는 녀석들’이 시작한 건강 프로젝트다. 북북북 방식을 통해 주인공으로 선택된 김민경은 지난 2월부터 본격적으로 운동을 시작했다.

“‘운동풍’은 다이어트가 아니잖아요. 더 건강해지고, 더 맛있게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운동하는 게 약속이니까 저는 정말 식단 조절도 안 하고 시키는 대로만 했어요.”

하지만 그런 그도 초반에는 체중 감량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고 털어놨다.

“저희의 취지가 시청자분들께도 그대로 받아들여질까 했어요. 그래도 운동이라는 걸 하는데 살이 좀 빠져 보여야 하지 않을까 싶어 경락을 받기도 했어요. (웃음) 근데 어느 순간 그 모든 것들이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민경은 ‘운동풍’을 통해 헬스, 필라테스, 이종격투기, 축구, 야구 등 다양한 운동에 도전하면서 선생님들의 극찬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는 “아직도 소질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고백했다.

그는 되려 “많은 분이 칭찬해주시지만 사실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힘내라고 좋게 말씀해주시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겸손함을 보였다.

또 자신에게 쏟아지는 많은 관심에도 “나는 아직 많이 부족한데 이런 관심을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다”면서 “주시는 사랑에 감사한 마음도 크지만 그만큼 신경 쓰고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더 생기는 것 같다”고 책임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한국 나이로는 올해 마흔 살이 된 그는 데뷔 후 지금의 전성기를 맞이하기까지 12년이란 시간이 걸렸다. 지금의 김민경이 있기까지는 지난 시간을 버텨온 특유의 근성이 있었다.

김민경은 2001년 개그계의 대부 전유성이 이끄는 극단 ‘코미디 시장’의 단원이 되면서 고향 대구를 떠나 서울살이를 시작했다.

코미디언이 되기 위한 오랜 준비 끝에 2008년 28세의 나이로 KBS 공채 개그맨이 됐다.

“전유성 선생님께서 정말 개그가 하고 싶다면 이 끈을 놓지 말고 꼭 붙들고 있으라고 하셨어요. ‘되든 안 되든 붙잡고 있어 보자’. 저 말이 진짜라면 뭐라도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저 하나만 붙들고 있었죠. 더는 나도 버틸 힘이 없다는 생각이 들 때 활력이 됐어요.”

힘겹게 거머쥔 공채 개그맨이라는 타이틀이었지만, 방송 생활은 생각처럼 쉽지 않은 않았다.

오나미, 정태호, 김대성 등 동기들이 여러 코너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지만 김민경은 입사 후 1년 동안 코너에 참여하



코미디언 김민경.

/JDB엔터테인먼트 제공

지 못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목욕하러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조금씩 시청자들에게 자신을 알려갔다. 지금은 ‘민경 장군’, ‘근수저’, ‘운동대신 운동’, ‘체육 대신 체육을 택한 자’, ‘태릉이 놓친 인재’ 등의 별명을 가진 인기 코미디언이 됐다.

그는 인기를 얻는 것보다도 ‘착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고 생각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앞으로 세계 어떤 수식어가 붙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게 무엇이든 항상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남고 싶어요.” /연합뉴스

대자연에 직접 집을 짓고 마을 공동체를 꾸리는가 하면(KBS 2TV ‘땅만빌리지’) 특전사 출신 교관과 다양한 재난 상황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우고(tvN ‘나는 살아있다’) 요트 위에서 24시간을 지낸 다(tvN ‘바닷길 선발대’·MBC에브리원 ‘요트워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최근 예능가는 온통 살아남기, 즉 ‘생존’을 코드로 한 콘텐츠가 쏟아지고 있다.

최근 방송을 중단하기는 했지만 유튜브 콘텐츠 ‘가짜사나이’의 히트를 계기로 극한의 상황에서 살아남는 법을 그리는 예능이 급증했다.

“나는 살아있다”는 군대 체험 예능과 생존 예능의 경계를 오가며 첫 방송부터 주목받는 데 성공했다.

배우 김성령부터 복싱 선수 출신인 배우 이시영, 남다른 운동 신경을 가진 개그우민 김민경, 펜싱 선수 김지연, 방송인 오정연, 아이돌 스타인 (여자)아이들 우기까지 여자 스타 6명이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눈길을 끌었다.

디스커버리 채널 코리아의 ‘서바이벌’은 개그맨 황제성 등이 생존 전문가로 불리는 배어 그릴스와 에드 스테포드가 출

연했던 야생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보며 불을 피우는 법 등을 배우는 내용이다.

오는 20일 선보일 KBS 1TV ‘재난탈출 생존왕’은 아예 제목부터 목적이 뚜렷하다. 배우 정시아와 특전사 출신 최영재가 다양한 재난 현장을 직접 찾아가 원인과 위험성을 알아보고 실형, 사고 체험, 상황 재연 등을 통해 안전 정보를 입체적으로 전달한다.

여기까지가 본격 ‘생존 예능’이었다면, 여행 예능과 접목한 콘텐츠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땅만빌리지’는 강원도 양양에서 김병만과 김구라, 이기우, 유인영, 윤두준, 오마이걸, 래퍼 그리가 꿈에 그리던 세컨하우스를 짓고 공동체를 이뤄 생활하는 내용을 담았다.

SBS TV ‘정글의 법칙’도 코로나19속 국내 편을 연이어 선보이고 있다. 김병만도 “항상 보던 바다와 산이었는데 다른 나라에 비해 (생존이) 어려웠다”고 했을 만큼 국내 오지들도 만만치 않은 난도를 자랑해 볼거리로서 손색이 없다.

‘바닷길 선발대’와 ‘요트워킹’은 선상에서 24시간을 보내며 생존하고 여행도 하는 콘셉트로 눈길을 끈다.

/연합뉴스

## 영화 ‘도굴’ 2주째 정상

지난 4일 개봉...누적 관객 100만명 돌파

범죄 오락 영화 ‘도굴’이 100만 관객을 돌파하며 2주째 주말 박스오피스 정상상을 지켰다.

16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도굴’은 지난 주말 사흘(13~15일) 동안 26만3,000여명(점유율 46.3%)의 관객을 모으며 박스오피스 1위를 유지했다. 지난 4일 개봉 이후 누적 관객은 100만1,000여명이다.

‘삼진그룹 영어토막말’과 12일 개봉한 ‘내가 죽던 날’이 근소한 차이로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상고 출신 대기업 여성 직원들의 우정과 연대를 그린 ‘삼진그룹 영어토막말’은 10만4,000여명(18.3%)의 관객을 더하며 지난달 21일 개봉 이후 누적 관객 144만1,000여명을 기록했다.

동갑내기 배우 김혜수와 이정은이 외딴 섬에서 사라진 소녀를 추적하는 형사 현수와 마지막 목격자인 섬 주민 순천택으로 호연한 ‘내가 죽던 날’은 10만1,000



여명(18.1%)의 관객을 모았다. ‘내가 죽던 날’과 같은 날 개봉한 가수 출신 정수정의 첫 영화 주연작 ‘에비규환’은 6위에 올랐다. /연합뉴스

## 소년미 벗고 로커로 돌아온 ‘와이 돈 위’

“악기를 다시 우리의 뿌리로 가져왔어요. 앨범에 실린 모든 곡이 악기 연주가 강해서 앨범이 마치 살아있는 듯한 느낌이예요.”

미국 보이그룹 ‘와이 돈 위(Why Don't We)’가 밴드 사운드로 강하게 칠한 2집 ‘더 굿 타임스 앤드 더 배드 원스’(The Good Times and the Bad Ones)를 내년 1월 15일 발표한다.

조나 마레, 콜빈 베슨, 다니엘 시비, 잭 에이버리, 잭 헤론으로 구성된 이들은 ‘제2의 워너비’라 불릴 만큼 미국 10~20대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이번 앨범에선 풋풋한 소년미를 벗고, 거칠게 악기를 연주하는 ‘로커’로 변신을 시도한다. 구체적인 트랙 리스트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데뷔 앨범 ‘에이트 레터스’(8 Letters)가 하모니를 강조한 R&B(리듬 앤드 블루스)가 많았던 것과 달리 새 앨범은 록 장르로 가득 채워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보이밴드 ‘와이 돈 위’.

/워너뮤직코리아 제공

### 내년 1월 자작곡으로 채운 2집 발매 “빌보드 톱10·플래티넘 타이틀 얻고파”

이들은 최근 개최된 글로벌 온라인 쇼케이스를 통해 지난 9월 공개한 ‘폴린’(Fallin’)을 비롯해 미공개곡 ‘슬로우다운’(Slow Down), ‘그레이’(Grey),

‘로투스 인’(Lotus Inn) 등을 선보이기도 했다.

다섯 멤버는 독특한 음색과 뛰어난 가창력을 바탕으로 보컬을 소화하면서도 쉬

지 않고 베이스, 기타, 드럼, 키보드 등을 연주했다.

공연을 마친 다니엘 시비는 “투어를 다시 하고 싶어 죽을 것 같다”며 “이번 앨범은 그 어떤 앨범보다 공연하기 좋은 앨범”이라고 소개했다.

와이 돈 위는 직접 작사·작곡·프로듀싱하며 아티스트로서 한층 성장한 면모를 보였다. 올해 1월부터 모든 소셜미디어를 끊고 스튜디오에 틀어박혀 작업에만 몰두한 덕분이었다.

조나 마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공연을 하지 못하게 되자 오히려 이번 2집이 세상에 나올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와이 돈 위가 이처럼 공들여 만든 앨범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는 무엇일까.

잭 헤론은 “빌보드 톱10”이라며 웃었다. 이들은 2018년 발표한 ‘에이트 레터스’로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에 9위로 데뷔한 바 있다.

콜빈 베슨은 “‘플래티넘’(100만장 이상 판매) 앨범이 되는 것”이라며 “그 타이틀을 얻게 된다면 정말 멋진 성과가 될 것 같다”고 힘줘 말했다. /연합뉴스

오늘의 운세 김도완 선생 제공 02-766-1818 www.esazu.com

11월 17일 (음력 10월 3일)

 <p>48년생 똥치면 살고 흠어지면 죽는다. 60년생 쥐구멍에도 별들날 있다. 72년생 모로 가도 서 울만 가면 된다. 84년생 재주를 발휘하여 인기를 얻는다.</p>	 <p>49년생 친절은 결코 헛되지 않다. 61년생 2보 점진을 위한 1보 후퇴도 필요하다. 73년생 나서지 말고 관망하라. 85년생 불청객이 찾아오니 소란스럽다.</p>	 <p>50년생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62년생 세상이 마음대로 안 된다. 74년생 동분서주하는 바쁜 날이다. 86년생 경망스런 언행으로 어려움을 자초한다.</p>	 <p>51년생 불행은 대부분 욕심 때문에 생긴다. 63년생 가능하면 대세를 좇아라. 75년생 이 세상에 공짜란 없다. 87년생 색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지 마라.</p>
 <p>52년생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 64년생 높이는 새가 멀리 본다. 76년생 항상 웃는 얼굴에는 복이 가득하다. 88년생 답답한 일이 이어진다.</p>	 <p>41년생 기본 소식이 있겠다. 53년생 지금 이것 저것 가릴 때가 아니다. 65년생 집착을 버리면 자유를 얻는다. 77년생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p>	 <p>42년생 가는 곳마다 행운이 따른다. 54년생 부상자의 뉘는 있어도 죽은 자의 뉘는 없다. 66년생 노력하면 된다. 78년생 중요한 순간에 망설이지 마라.</p>	 <p>43년생 모난 돌이 정 맞는다. 55년생 용이 여의주를 얻고 승천한다. 67년생 중간에 고비는 있겠지만 결과는 좋겠다. 79년생 행운이 함께 하는 길이다.</p>
 <p>44년생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56년생 용이 열리고 기본 좋은 일이 있겠다. 68년생 모든 것은 생각하기 나름이다. 80년생 노력해도 안 되는 일도 있다.</p>	 <p>45년생 원하는 것을 얻는다. 57년생 모든 일에는 그만한 사연이 있다. 69년생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 81년생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번다.</p>	 <p>46년생 자존심이 밥 먹여주지는 않는다. 58년생 가는 날이 장날이다. 70년생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한다. 82년생 오늘은 몸과 마음이 모두 힘들다.</p>	 <p>47년생 누구나 한 번은 실수할 수 있다. 59년생 지금 날 걱정할 때가 아니다. 71년생 꿈꾸지 않는 자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83년생 대승적으로 생각하라.</p>